

일본의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독도 내용 제시 방식

김 재 호

서울 신대림초등학교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일본 관련 국제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거론되며 우리나라의 여론을 들끓게 하고 있는 정치 문제가 있다. 그 중의 대표적인 것 중 하나로 일본 교과서 왜곡문제가 있다. 일본의 교과서 왜곡 문제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공분을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사안은 일본이 현재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서 독도를 일본의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과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중군위안부에 관련한 서술을 은폐 및 축소하고 있는 것이다. 두 사안 모두 우리나라의 일제 강점기 시대를 기점으로 부터 사실의 왜곡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은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일본 교과서 왜곡은 역사가 짧지 않고, 일본 정부와 교육계에서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고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며, 자라나는 일본과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관과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일본 교과서 왜곡의 내용 중 하나인,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이를 분석할 필요성을 느끼고 연구를 시작하였다.

사회과 교과서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 민족, 국가 등의 문화 및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세를 함양하며 정체성을 만들어가기도 한다. 또한, 인간의 특정한 정체성은 항상 공간을 매개로 하며 그것은 개인의 차원이든 집단의 차원이든 하나의 영역 즉 생존공간으로 나타나므로 항상 영역화된 속성, 영역적 정체성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남호엽, 2001: 38).

이와 같이 공간은 한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공간은 중요한 매개체가 되며, 한 나라의 국민으로 보았을 때의 '우리나라'라는 국토의 표상(表象)은 언어나 교통의 균질화로 생기는 하나의 '상상의 공동체'이다(李孝德, 2002). 이를 한 나라가 아닌, 제국(諸國)의 범위로 확대시켜본다면, 각 국의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배경에 의해 형성된 타자의 표상이 결국 정치문제와 외교문제로 심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기도 한다(高木昭彦, 2005). 때문에 국민 개개인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배경이 될 수 있는 교과서의 왜곡은, 미래 사회의 정치적인 불화의 씨앗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일본의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의 사회과 교과서에서 나타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제시 방식을 출판사별, 학교급별로 분류해 보고, 교과서를 분석을 해본다. 더 나아가서는 일본의 사회과교과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여, 한국 사회과 교과서 변화의 방향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첫째,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일본 사회과 교과서를 조사한다.

둘째, 일본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독도 영유권 제시 방식을 형식체제로 분석한다.

셋째, 일본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독도 영유권 제시 방식을 내용체제로 분석한다.

넷째, 일본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독도 영유권 제시방식을 학교 급별, 출판사별, 교과서 과목별 경향을 분석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공간 인식과 표상 시스템

한 사람의 공간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그 사람이 속한 국가(정부)의 공간 인식이 절대적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사람이 사회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습득되는 대부분의 공간 인식에 관한 정보는 국가 시스템 안에서 생산이 되며, 형식화된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대부분은 국가 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진다. 이 국가 정부 주도 교육 계획은 국가교육과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Flint(2006)는 정부의 국가의 공간인식과 정체성의 존립을 위한 책략으로써 지정학적 논리를 사용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한 정부의 정통성과 수명은 외부 위협으로부터 경계를 유지하는 능력에 의해 좌우된다. 한 국가의 정체성은 외부의 위협에 직면해 특정한 대내적 정치를 견지하는 지정학적 '질서'감각을 유지시키는 데에 경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 여부에 의존한다(한국지정학연구회 역, 2007: 252).

Flint(2006)의 논지에서 본 바와 같이, 한 정부가 국민을 결집시키거나 정통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나라의 경계에 대한 확고한 정립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경계에 대한 정립은 지정학적인 논지에서 비추어보았을 때 국가와 정부에 따라 달라짐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남호엽(2013)은 비단 지도제작의 성격을 유념하여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지도에 담고 있는 정보는 단순한 사실들이 아니라, 지역적인 것의 의미관계를 재현하고 있는 '기호들'이다. 지도상에 나타난 기호들은 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다양한 지역의 정보들 중에서 선택하고 배치한 결과물로 나타난다. 그래서 지도에 담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선택의 잣대를 통과한 것인지, 어떤 배치의 논리를 수용하고 있는지 분석해야 한다(p.122).

앞의 Flint(2006)과 남호엽(2013)의 논의에서 볼 수 있듯이, 지도는 하나의 객관적인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도구가 아니라 국가나 정부, 혹은 지도 제작자에 의해 얼마든지 변형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렇다면, Flint(2006)과 남호엽(2013)이 논의하였던 '표상'이라는 것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 李孝德(2002)은 다음과 같이 '표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회'란 표상 시스템을 내포하는 보다 고차적인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시스템은 커뮤니케이션을 산출하는 네트워크에 의해 구성되는 '공간'과 동일한 의미라면, 특정 '시대'의 특정 '문화'를 가진 사회는 커뮤니케이션 형태에 의해 규정되는 셈이다. 결국 사회는 자신이 내포하는 표상 시스템 즉, 커뮤니케이션 형태를 구성하는 미디어에 의해 규정된다. 그러므로 표상 시스템이 변용되었다면, 그것은 사회-커뮤니케이션 형태가 변용된 것, 다시 말해 미디어가 변용된 것이다(p.20).

즉, 李孝德(2002)이 논의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인식하는 풍경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표상은 결국 미디어에 의해, 혹은 개인과 사회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교육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대부분의 지도는 국가의 주도 하에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 지도는 제작하는 단체나 개인에 의해 얼마든지 표현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교과서에 실려 있는 지도는 정부가 만들어 놓은 표상시스템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개인의 '풍경'이라는 개념은 이 표상시스템에 좌지우지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요컨대, 개인의 풍경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정부에 의해 선택되어 온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2. 영역학의 공간스케일론

앞서 살펴보았던 개인이나 단체의 공간인식은 단순히 일차원적인 개념으로만 파악하기에는 힘들며, 다양한 범위에서 입체적으로 분석을 통해 해석이 가능한 성질을 지닌다. 지리학에서는 이 범위를 스케일이라고 명명하며, 山崎考史(2005)는 다음과 같이 스케일의 의미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보통 지리학에서 스케일은 지도학적, 방법론적, 지리적 스케일이라는 세 가지 의미가 존재한다. 지도학적 스케일은 지도가 작성되는 추상화 정도를 의미하며, 지도의 축척이 작아질수록 지도에 표현되는 사물의 구체성(해상도)은 감소한다. 방법론적 스케일은 연구자가 특정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선택하는 공간적 단위, 예컨대 국제조사의 통계구나 행정단위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스케일의 선택은 연구과제, 자료의 존재, 자료의 획득과 가공의 비용 등과 연관되어 결정된다. (중략) 지리적 스케일은 도시나 하천유역, 지구등과 같은 특정 경관의 차원을 의미한다(Smith, 2000; 山崎考史, 2005: 51-52 재인용).

앞에서 살펴본 스케일이라는 개념을 수용한다면, 현대 사회에서 사회적이고 공간적인 개념이 단순한 일차원적이라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교통이나 통신의 발달로 개인이 국제적인 사회 공간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으며, 반대로 국제적인 경제나 정치 사안이 개인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간과 할 수 없다. 따라서 지리적 스케일을 고려했을 때 다양한 스케일을 고려해야 하는데, 山崎考史(2005)은 다음과 같이 논지하고 있다.

지리학 연구자는 연구대상이 되는 사상(事象)에 따라 다양한 스케일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러한 연구시각에 대해 특히 최근 중요시 된 것은 로컬에서 글로벌에 이르는 몇 가지 스케일 사이의 상호작용과 관계이다 (중략) 서로 다른 스케일을 시야에 넣은 ‘멀티스케일’에서의 고찰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p.50).

이 ‘멀티스케일’은 한 연구대상에도 다양한 범위의 스케일이 관여하고 있으므로 두 가지 이상의 스케일을 고려하여, 연구대상을 파악하고 분석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스케일의 범위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을까? 일찍이, 스미스는 신체, 가정, 커뮤니티, 로컬, 리저널, 내셔널, 글로벌의 스케일의 계층성을 확인하였다(Smith, 2000: 山崎考史, 2005: 58 재인용). 특히 최근에 글로벌화가 가속됨에 따라서 글로벌 스케일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의 논의 예로서, 독도 영유권 관련 문제를 고려해보면, 단순히 독도 영유권 문제는 경상북도와 시마네현(島根縣)만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나라와 일본 만의 문제도 더더욱 아니다. 일본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의 경우에는 글로벌 스케일에서도 고려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III.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일본의 학습지도요령과 그 해설 중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2008년 학습지도요령 사회과(學習指導要領 社會科), 고등학교의 경우 2011년 학습지도요령 지리A(學習指導要領 地理A), 2011년 학습지도요령 지리B(學習指導要領 地理B)가 분석 대상이다. 교과서의 분석 대상은 일본의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중학교의 지리 교과서, 공민교과서, 고등학교의 지리교과서, 일본사교과서이다.

2. 분석 준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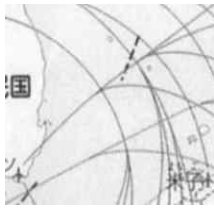

분류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교급별로 나누는 방법, 두 번째로는 출판사별로 나누는 방법, 마지막으로 사회, 지리, 공민, 역사 등으로 사회과 교과서를 과목별로 나누는 방법이다. 학교급, 출판사, 과목별 분류를 진행하고 학교 급별과 출판사, 과목별 특징에 대해 분석해 본다. 둘째, 형식 체제의 분석이다. 형식체제 분석은 가장 큰 범주로서 일본 교과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사진 및 지도의 유무와 문장서술로 나뉜다. 사진 및 지도가 수록이 되어 있는 경우는 사진이나 지도에 ‘다케시마(竹島)’라는 표제가 붙어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한다. 표제가 붙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국경선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추후 논의를 하겠으나, 표제가 붙어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주장의 강도가 강하다고 판단을 한다. 또한 문장서술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눌 때, 문장서술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문장의 양의 차이를 분석해본다. 즉, 문장의 개수를 분석해보는 것이며, 사진 및 지도의 부연 설명이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을 경우를 포함한다.

<표 III-3> 형식체제 분석표

사진 및 지도 수록			문장의 양
표제 있음①	표제 없음②	합계	

표 III-3의 형식체제 분석표의 예시 준거로서 ①,②의 경우는 다음의 표 III-4와 같으며, 문장의 양에는 사진 및 지도의 설명에 포함되어 있는 문장의 양도 포함한다. 이의 경우는 다음 표 III-4의 ③의 경우와 같다. 사진 및 지도 수록의 경우에서 표제와 국경선이 없는 경우는 사진 및 지도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의 범위에서 배제한다.

<표 III-4> 형식체제 분석 예시 준거

번호	① 표제 있음	② 표제 없음	③ 사진 및 지도 설명
형식 체제 종류			
출처	東京書籍 新しい社會 5年 上, p8.	教育出版 社會 6學年 下, p39.	教育出版 中學社會 地理, p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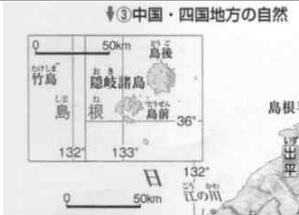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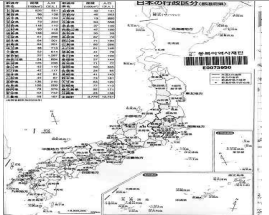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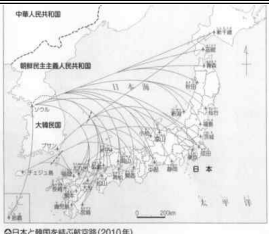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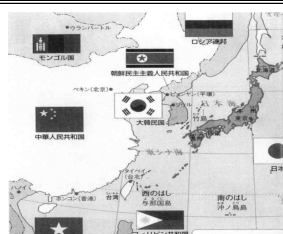
셋째, 내용 체제의 분석이다. 본 연구에서 내용 체제적 분석은 일본 교과서에서 독도 영유권이 게재되었을 때 그 배경에 주어지는 공간 스케일에 대한 분석을 의미한다. 이 공간 스케일은 다섯 개의 스케일로 나누며, 첫 번째 공간스케일로는 일본의 지방 단위인 현(縣)이나 지방(地方) 규모의 지역스케일, 두 번째로는 일본 국가 규모의 내셔널스케일, 세 번째는 한국과 일본 양국 규모의 인터내셔널스케일, 네 번째로는 동아시아 규모의 스케일, 마지막으로는 글로벌스케일로 나눈다. 스케일의 범위가 커질수록 독도 문제가 공론화될 수 있는 위험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

<표 III-5> 내용체제 분석표

공간스케일				
지역스케일	내셔널스케일	인터내셔널스케일	동아시아스케일	글로벌스케일
①	②	③	④	⑤

표 III-5의 내용체제 분석표의 예시준거인 ①,②,③,④의 경우는 다음의 표 III-6의 경우와 같으며, ⑤의 경우인 글로벌 스케일에 해당하는 내용체제는 그림이나 사진보다는 내용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연구결과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한다.

<표 III-6> 내용체제 분석 예시 준거

번호	① 지역스케일	② 내셔널스케일
내용 체제 종류		
출처 번호	帝國書院, 中學生の地理, 2012, p.180.	東京書籍, 地理A, 2011, 부록.
번호	③ 인터내셔널스케일	④ 동아시아스케일
내용 체제 종류		
출처	教育出版 小學社會 6年 下, 2011, p.39.	東京書籍 新しい社會 5年 上, 2011, p.8.

IV. 연구결과

1. 일본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 분석

일본의 모든 학교급의 학습지도요령에서 독도에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학습지도요령해설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영토문제이며, 영토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러시아와의 영토 문제 갈등상황인 북방영토에 관한 구체적인 서술이 모든 학교급에서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학교에서는 러시아와의 북방영토 갈등 상황과 더불어 독도에 대한 언급이 명시적으로 서술되어 있다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서 구체적이고 자세한 독도 영유권 주장 내용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고등학교 사회과에서는 중학교의 내용을 복습을 하며, 러시아와의 갈등 상황과 더불어 '북방영토 등'이라는 다소 개방적인 서술을 보았을 때 이는 독도에 관한 한일 갈등상황을 암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교과서 형식체제 분석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는 5,6학년에서 4개의 출판사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었으며, 중학교는 지리 교과서에서 4개의 출판사, 공민 교과서에서는 6개의 출판사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에서는 지리 교과서에서 7개의 출판사, 일본사에서 3개의 출판사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초등학교에서 쓰이는 총 5권의 교과서에서 사진이나 지도가 4개, 문장은 1문장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중학교에서는 10권의 교과서에서 사진이나 지도가 17개, 문장은 28개, 고등학교에서는 8권에서 사진이나 지도가 8개, 문장은 9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교과서 내용체제 분석

초등학교에서는 인터내셔널 스케일이 1번, 동아시아스케일이 4번 사용되었으며, 중학교에서는 지역스케일이 7번, 내셔널스케일이 2번, 인터내셔널스케일이 12번, 동아시아스케일이 16번, 글로벌스케일이 3번, 고등학교에서는 지역스케일이 1번, 내셔널스케일이 1번, 인터내셔널스케일이 2번, 동아시아스케일이 9번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었다.

4. 학교급별, 출판사별, 과목별 경향 분석

가. 학교급별 경향 분석

초등학교에서는 학습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학교급에 비하여 형식체제에서는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 않으며 형식체제에서 분석된 절대적인 수치는 가장 적다. 내용체제를 보면, 5학년에서는 동아시아 스케일, 6학년에서는 인터내셔널스케일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이 제기되고 있었다. 5학년보다 6학년에 스케일의 범위가 한일 양국으로 좁아진 것은 독도 영유권에 관련한 영유권 문제를 보다 한일 양국의 문제로 집중하기 위해, 혹은 중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에 대한 선행적인 지식을 쌓기 위한 발판으로 삼기 위함일 수도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이 확인된 6학년의 교과서는 한 곳 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의 뚜렷한 경향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는 중학교이다. 중학교에서는 형식체제 분석에서 다른 학교급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가 파악이 되었으며, 내용체제 분석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다섯 가지 스케일의 범주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이 게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중학교에서는 모든 학교급에서 유일하게 국제법에 대한 논지로써 글로벌스케일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었다. 스케일의 범주가 커질수록 다양한 국가가 관여되기 때문에 공론화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글로벌 스케일의 경우,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가 관여되기 때문에 보다 공론화되기 쉽다. 따라서 내용면에서 글로벌스케일을 이용한 독도 영유권 주장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위협적이며 우리나라 교육계에서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위의 논지에 따라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는 독도 영유권 주장관련 교과서 왜곡의 중심이며, 그 주장의 내용도 가장 강한 경향을 보임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학습지도요령해설에서 직접적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학습지도요령이 일본의 정치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을 고려해본다면, 양국의 정치권의 합의가 없으면,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인 것이다.

고등학교에서는 중학교보다 형식체제 분석 수치가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내용체제 분석에서 스케일의 종류가 지역스케일, 내셔널 스케일, 인터내셔널 스케일, 동아시아스케일인 4가지 종류로 축소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의 교과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다소 약화되고 있는 경향을 띠고, 초등학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강한 이유는 고등학교의 사회과 학습지도요령이나 학습지도요

명해설에 독도 영유권 관련 주장 내용이 게재되어 있지 않지만, 중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복습을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나. 출판사별 경향분석

두 번째로, 출판사별 형식체제에 대한 경향 분석이다. 독도 영유권 주장이 게재되어 있는 교과서를 편찬하는 수가 많을수록 그 파급력도 커지기 때문에 편찬 교과서의 절대수치가 많은 출판사의 순서대로 일본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분석 대상이 된 12개 출판사 중 가장 많은 교과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는 출판사는 東京書籍과 教育出版이었다. 이 두 곳의 출판사는 초, 중,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중 독도 영유권이 게재되어 있는 교과서를 4권 출판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3권인 日本文教出版, 2권인 帝國書院, 清水書院, 第一學習社, 1권만 출판하고 있는 光村圖書, 自由社, 育鵬社, 二宮書店, 山川出版社, 明成社가 있었다. 다음으로는 교과서의 상대적인 수치이다. 즉, 1권을 출판하더라도 그 주장의 강도가 센 우익교과서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분석이다. 평균적으로 분석을 하였을 때 압도적으로 많은 사진이나 지도, 그리고 문장을 사용하여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는 출판사는 自由社였다. 自由社는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자주 언급될 만큼 한국에서도 유명한 우익교과서이며, 이는 수치화를 통해서도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自由社이외에도 二宮書店, 育鵬社는 주장의 강도가 비교적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내용체제 분석에서 가장 많은 스케일을 사용하여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는 교과서는 東京書籍, 育鵬社의 두 곳으로 글로벌스케일을 제외한 모든 4종류의 스케일을 사용하여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었다. 또한 가장 넓은 범위인 글로벌스케일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는 교과서는 自由社, 育鵬社였다. 교과서에서 사용하는 스케일의 종류가 다양할수록 개인의 공간인식이 보다 굳건해지기 쉬운 경향이 있는 것을 고려해보고, 국제 사회에서 공론화시키기 용이한 글로벌 스케일을 사용하는 東京書籍과 自由社, 育鵬社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위협적인 출판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다. 과목별 경향분석

세 번째로 과목별 경향분석이다. 형식체제의 틀에서 분석된 과목들은 초등학교 사회, 지리, 공민, 일본사의 4개 과목이었다. 이 중에서 초등학교 사회와 일본사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는 교과서가 적기 때문에 하나의 경향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으나, 지리와 공민의 경우에는 하나의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리 교과서는 다른 과목에 비해 지도나 사진을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으며, 공민 교과서는 문장 서술을 통해 논리적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내용체제에서 분석된 과목별 특성은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사회는 일본의 영토를 제시하며 주로 동아시아 스케일을 사용하고 있으며, 지리교과서에서는 주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제시하며 주로 동아시아스케일을 사용했다. 일본사 교과서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대해 제시하며 동아시아 스케일을 사용했고, 공민 교과서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제시하며 동아시아스케일, 영토문제를 제시하며 인터내셔널 스케일,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회부에 대해 거론하며 글로벌스케일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분석되었다.

V. 제언

본 연구자는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추후 논의나 연구에서 보충되거나 심화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일본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점차 일본의 교육계 또한 우익 성향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의 일본 상황을 반영한 추후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자료들은 학습지도요령은 2008년, 교과서의 경우 2011년과 2012년에 발행된 것들이었다. 새롭게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은 2011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12년 중학교, 2013년 고등학교를 순차적으로 적용이 됐으며, 그에 해당하는 교과서 또한 발간되고 있다. 내년부터 일본 초등학교에서 사용될 예정인 교과서는 2014년 4월 4일에 검정이 시행되었으며,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점거 중’이라는 강한 표현이 언급된 교과서가 모두 검정에서 통과되었다(産経新聞, available :

<http://sankei.jp.msn.com/life/news/140404/edc14040411290002-r1.htm>, 검색일 2014년 4월 20일).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형식체제 분석 중 문장의 양에 대한 분석에 대한 심층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독도가 언급된 문장을 문장 단위로 분석을 하였으나 맥락이 배제된 점이 있다. 즉, 한 문장이라도 그 주장에 대한 강도가 다를 수 있고, 그 주장에 대한 근거와 상황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언어 표현에 대해 주목을 하여 보다 맥락을 고려한 심층적이고 분석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사회과 교과서, 나아가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제언이다. 일본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물론이거니와, 내년부터 사용되는 일본의 초등학교 교과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 강도가 거세졌으며, 이미 그 교과서가 검정에서 통과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이르렀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교과서에서는 주로 독도의 영유권에 대해 당위적인 입장에서 언급이 되어 있었고, 일본과의 영토분쟁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 제시나 논리적인 근거가 많았다고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사회과 교과서에서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라는 근거를 당위적인 입장과 더불어 논리적인 관점에서 언급이 필요할 것이며, 멀티스케일을 근거로 한 자료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통해 자라나는 학생들이 독도 영유권에 대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논리적인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교육할 수 있을 것이며, 더불어 일본측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내용과 그 허위성에 대한 반론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사회과 국가 교육과정의 재검토 및 사회과 교과서 집필진과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들 뿐 아니라 독도에 관한 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 남호엽, 2001, **한국 사회과에서 민족정체성과 지역정체성의 관계**, 한국교원대 박사학위논문.
- _____, 2011, 글로벌 시대 지정학 비전과 영토교육의 재개념화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9(3), 371-379.
- _____, 2013, 글로벌시대의 지역교육론, **한국학술정보(주)**
- Flint, C., 2006, *Introduction to Geopolitics*, Routledge (**한국지정학연구회역**, 2007, 지정학이란 무엇인가, 도서출판 길).
- Smith, N., 2000, Scale, *The Dictionary of Human Geography*(4th ed.) (Hohnston, R. J., Gregory, D., Pratt, G., and Watts, M. eds.), Blackwell, 724-727.
- 李孝德, 1997, **表象空間の近代**. 新曜社. (박성관 역, 2002, 표상공간의 근대, 소명출판.)
- 高木昭彦, 2005, **지정학과 언설**, 水内俊雄 編(2005) **空間の政治地理**, 朝倉書店(심정보역, 2010, 공간의 정치지리, 푸른길).
- 山崎考史, 2005 **글로벌 스케일 또는 로컬 스케일과 정치**, 水内俊雄 編(2005) **空間の政治地理**. 朝倉書店(심정보역, 2010, 공간의 정치지리, 푸른길).
- 産経新聞, 2014, available: <http://sankei.jp.msn.com/life/news/140404/edc14040411290002-n1.htm>.
- 新しい社會 5年 上, 2011, 東京書籍.
- 小學社會 6年 下, 2011, 教育出版.
- 中學生の地理, 2012, 帝國書院.
- 新しい社會 地理, 2012, 東京書籍.
- 中學社會 地理, 2012, 教育出版.